

# 체르노빌 報道, 美國 放送社들의 態度

샤론 프리드만, 캐롤 고니, 브렌다 에골프  
Lehigh 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은 변화의 강력한 도구일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 충격들로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할 수도 칭송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한 기술이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여론을 채색할 수도 있다. 즉, 이 기술들로 사회가 너무나 빨리 움직이게 되었다든가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과학이나 기술에는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론이 조장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그러한 기술이다. 원자력발전 기술은 처음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때로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 대중들의 눈에는 긍정적으로 비쳤다. 이것은 과학자 사회나 정부 산업체 내에서 이 기술에 대한 애호가 절대적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들 기관에 대한 신임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이러한 여론이 전문가들 사이의 불일치로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대중들도 점점 이러한 입장의 여론을 받

아들이는 데 조심스러워졌다.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발생한 트리마일섬 사고(TMI) 후에는 미국 대중들은 회의적이 되었다.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할 위험들이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버금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의구심이 나타났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존재하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제 2정당이던 사회민주당에서 10년내에 원자력발전소를 폐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 정책이 당시 원자력을 쥐고 있던 이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동안 영국과 벨기에, 핀란드 등의 나라들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점점 부풀어만 가는 경제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대중의 반대여론으로 중단되었다.

1989년 무렵에는 일본과 프랑스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존

도를 실제로 높여가는 계획을 진행한 유일한 민주국가였다.

미국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과 몇몇 외부인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미국 대중의 태도가 TMI나 체르노빌 사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이들 사건이나 일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송 보도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자력산업 지지자들과 몇몇 학자들은 방송이 원자력 사고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사고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여 원자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여서 대중들로 하여금 원자력에 관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원자력에 관한 논쟁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나타나게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원자력발전의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이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를 다룬 뉴스 보도가 불충분하거나 대개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MI 사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발생한 방사능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 사고를 연구했던 대통령위원회가 끝없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하지 거의 2년 후에도 TMI 근처 지역에서 발간된 신문들에서 보면 이러한 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원자력산업으로서는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이 미국 언론 보도나

##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후 최초의 2주간, 즉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1986년 4월 28일 밤부터, 신문에 대해서는 4월 29일 아침 조간부터 5월 12일 까지를 다루었다. 여기에는 5대 미국 일간지와 3대 텔레비전 방송망의 초저녁 뉴스를 포함하고 있다. 기간은 사건이 발생하여 전개되어가는 동안의 방송 내용을 다룰 수 있었던 시기로 선정하였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지(Philadelphia Inquire)를 각각 상이한 견해를 표명한 주요한 대표 매체로 선정하였다. 타임즈는 거대한 외국 통신망을 가지고 있고 과학 기술자들도 많은 경력있는 미국 일간지로 여기고 있다. 포스트는 워싱턴의 정치적 경향을 전해주고, 인콰이어지는 TMI 사고 보도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이래 원자력발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경제적인 관점을 주로 보여주었고 타임즈 미러 그룹의 일부인 중간 크기의 일간지 알렌타운 모닝콜지(Allentown Morning Call)는 소규모의 지역 신문을 대표한다. 이 주동안 체르노빌에 관해 이 신문들이 보도한 모든 기사를 분석하였다.

출판물들을 읽음으로 해서 반핵 입장의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로스만(Rothman)과 리히터(Linhter)는 이와 같이 방송 연출자나 보도자들, 이름있는 신문의 기자들이나 과학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지나친 회의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망인 ABC서는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전, '불이나다'라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세시간짜리 기록 필름을 방영한 바 있는데, 당시 미국원자력산업회의(Atomic Industrial Forum)에서는 이 필름에 광고에서 쓰이는 잠재의식 기술이 사용되어 각 가정에 반핵, 반기술 이미지를 조장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원자력산업체에선 원자력발전에 관한 저널들의 편향적인 경향에 대하여 자주 불평을 토로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체르노빌 사고 보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국 뉴스 방송에서 체르노빌 사고 기간 동안 원자력산업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4가지 주요 질문에 초점을 두었다. 미국 방송 보도자들이나 편집자들은 원자력산업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르노빌을 이용하였는가? 그들은 반핵 보도를 공정하게 다루었는가, 아니면 비중을 더 두고 다루었는가? 그들은 여러 나라들의 관련

원자력산업들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시청자나 독자들은 원자력산업의 과거나 현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얻고 있었는가?

이들 질문에 말하기 전에 미국 방송의 체르노빌 사고에 관한 보도 수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개괄해 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연구자들, 원자력산업체 소속의 연구자들조차도 미국 방송이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방송 분석 서비스 그룹인 프로막 커뮤니케이션 그룹은 체르노빌 보도에 관하여 이름있는 신문들에서는 '커다란 실수들은 피해갔고 당시 어떤 사실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현명하고 사려깊은 견해들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이 그룹은 그러나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방송망들이 이 사고를 과장 선전하였고 가장 치명적인 영상들과 강력한 억측들을 사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방사능에 관한 정보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협에 관한 내용의 보도를 평가하였던 체르노빌에 관한 과거의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체르노빌 사고를 보도하는 데서 방사능이나 위협에 관한 정보들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제공한 정보들은 적절하고 공정하며 보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표 1. 1986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체르노빌 보도기사와 뉴스 방송현황

신문 또는 방송	전체 기사/ 뉴스 방송	
	n	%
뉴욕 타임즈	132	33.5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저	112	28.4
워싱턴 포스트	105	26.9
월 스트리트 저널	25	6.3
앨런타운 모닝 콜	19	4.8
전체 신문	394	99.9
ABC	14	32.6
CBS	15	34.9
NBC	14	32.6
전체 방송	43*	100.1

\* 2개의 뉴스 방송 테이프는 입수할 수 없어 기록 불능

ABC, CBS, NBC로부터 녹음한 뉴스 프로그램의 비디오 테이프는 반더빌트 대학의 방송기록보관소에서 제공받았다. 연구기간 동안 방송된 45개의 뉴스 프로그램 중 두 개는 놓쳐버려서 기록하지 못했다.

### 연구결과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후 처음 2주 동안은 5대 일간지들에는 394개에 달하는 기사들이 실렸고 방송에서는 3개 방송사에서 45개의 뉴스방송으로 다루었다(표1. 참조).

중대한 기사들은 5대 일간지들이 체르노빌 현지 취재로 신중하게 다루었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원자력산업이나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보는 다루지 않았다. 텔레

비전은 원자력산업 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빈곤하였다. 처음 1주 동안 222분에 해당할 정도로 체르노빌에 기울었던 방송의 비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사항목에 대해 43뉴스 중 9뉴스만이 원자력발전이나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었다.(21%) 체르노빌 사고의 초점은 사고 자체였고 방사능 낙진에 관한 것이었다. 방사능 정보조차 184개의 신문 기사(46.7%) 43개의 텔레비전 뉴스 중 26(69%)개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41개의 신문 기사만이 (10.4%) 그들의 주요한 주제를 체르노빌 사건이 미국 원자력산업에 미칠 영향이나 그에 필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TV 뉴스에서는 어떤 것도 체르노빌이 원자력산업에 미칠 영향

이나 그에 필적하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든, 부수적으로든 다를 바가 없다.

### 안전기록과 과거의 사고들

한 보도자가 부정적인 사고나 상황을 다룰 때는 언제나 비슷한 과거 사건의 기록을 필히 언급하게 된다. 이것은 이 사건이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문제성 있는 상황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방송이 관리들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그들의 개인사나 그들이 얻은 투표수들을 보게 된다. 또한 미국 의회를 보도할 때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정보도 언급한다. 화학약품 누출 사건을 보도할 때면, 대개 그 회사가 과거에도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따라서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에서도 방송은 안전 기록이나 그 산업사와 관련하여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 그밖에 유럽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하리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신문 기사 중 89개에서(22.5%) 미국 원자력산업에 관한 안전 기록이나 과거 사건들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급들이 그렇게 깊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소련 원자력 산업에서 나타난 안전 기록이나 과거 사고들에 관해서는 정보가 더 부족했다. 체르노빌이 소련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왜 미국

언론 매체들은 미국 상황에 더 주목을 하였던 것인가? 우리는 정보의 가능성이 중요한 인자였다는 가설을 세웠다. 체르노빌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동안에 소련 원자력산업을 둘러싸고 있던 비밀로 인해 그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받았지만, 미국 원자력산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몇가지 또 다른 배경이나, 역사적인 요인들이 또한 소련의 원자력발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물론 중요하였다. 하나는 기사들이 왜 원자력발전소가 그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또한 왜 소련이 다른 형이 아니라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사용했었나에 관한 정보 또한 그 나라의 원자력발전 운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사고 전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7개의 기사와 1개의 뉴스 방송단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길이는 모두 1~2 단락이나 화면 정도였다.

### 현재의 상황

각 나라가 각 지역의 원자력산업이 맞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사고나 안전 기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도 자세는 균형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

서 신문들이나 텔레비전 뉴스 방송을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이 산업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언급하였던 점을 근거로 발췌한 결과 현재의 원자력산업 현황에 대한 보도율은 과거 사고나 사고 현황 보도에 비해 낮았다.

### 부정적인 정보

소규모의 원자력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원자력발전 기술은 대부분 비판을 받는다. 체르노빌 정도 규모의 사고라면, 언론 매체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개시할 수 있었고, 이들 산업에 장애가 되는 다른 인자들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언론 매체들이 반핵 입장이었다면 몇몇 비판론자들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하였을 것이다.

인쇄된 보도 중의 76개의 기사들(19.3%)이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력산업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나 비판을 담고 있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공격성 발언이나 비판들을 담은 42(55.3%)개의 기사들이 미국을 향하고 있었고, 12(15.8%)개가 소련에 8(10.5%)개가 미국과 소련에 7(9.2%)개가 모든 지역을 향하고 있었다.

체르노빌 사고의 주요한 역효과를 고려할 때, 언론 매체에 대한 찬핵론자의 비판이 옳았다면 더 많은 기사들이나 뉴스 방송이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논평이 소수였다고 하지만, 신문기사에 나타난 논평의 반수 이상이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국 원자력산업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은 명심해야만 한다.

이것은 아마도 이들 보도자들이 소련이나 유럽에 관해서 보다 미국의 원자력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미국 산업에 대해 더 부정적인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6개의 기사들이 공격성 언급이나 비판을 담고 있었고 66개의 기사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겨우 35개의 기사가 정부의 부가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이 역시 흥미롭다. 이것은 TMI 사고 동안이나 사고 후에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순화되어 있었다. 미국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없었고 가깝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거나, 강화된 정부의 규제가 원자력 사고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감정이 반영될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다.

### 찬핵 · 반핵 논평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망의 보도가 반핵 경향으로 편중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또 다른 방법

표 2. 한 국가의 원자력발전 또는 원자력산업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나 비판을 가한 기사 또는 뉴스 방송

신문/ 방송	공격회수/ 국가에 의한비판*										
	US	SU	EE	WE	US & SU	US & WE	SU & WE	EE & WE	Ewwey	Other	Total
뉴욕 타임즈	15	1	0	0	5	0	0	0	3	1	25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저	11	5	0	0	3	1	0	0	0	0	20
워싱턴 포스트	8	3	0	2	0	0	1	1	1	0	16
월 스트리트 저널	4	3	0	0	0	1	0	0	1	0	9
앨런타운 모닝 콜	4	0	0	0	0	0	0	0	2	0	6
전체 신문	42	12	0	2	8	2	1	1	7	1	76
ABC	2	0	0	0	0	0	0	0	0	0	2
CBS	0	1	0	0	0	0	0	0	1	0	2
NBC	0	0	0	0	0	0	0	0	1	0	1
전체 방송	2	1	0	0	0	0	0	0	2	0	5

\* US=미국, SU=소련, EE=동유럽, WE=서유럽

은 그들이 보도에서 찬핵, 반핵 정보원을 사용하는 데 균형을 이루고 있었나를 보는 것이다.

찬핵이다, 반핵이다를 즉각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보원을 사용한 예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찬핵 정보원들이 34개 혹은 8.6%의 기사들에서 진술을 하였다. 물론 그 기사를 중 19개(55.9%)가 반핵 정보원에서 나온 진술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반핵 의견들은 11개의 뉴스 방송(25.6%)에서 사용되었는데 7개 방송이 찬핵 진술과 균형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다만 하나의 인용을 다른 인용과 짝을 지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문 지면이나 방송 시간면에서 동일한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신문들에서 보이는 차이들

어떤 신문이 원자력발전 주제나 원자력산업에 관해 가장 많은 보도를 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만 하였다. 첫째, 3대 주요 일간지들 모두 체르노빌에 관해 똑같은 기사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훨씬 작은 수의 기사를 낸 신문들도 두 종이 있었다. 따라서 판단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였다. 상대적으로 큰 신문들에 대해서는 기사들의 수를, 그리고 이들 5개 신문들에 대해서는 모든 보도에 이 기사가 차지하는 조사해보았다.

모든 이들 조사에 근거해 볼

때 인콰이어저가 다른 주요 신문들보다 다소 반핵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음을 나타내 주는 양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찬핵 입장의 비판가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만큼 강도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조사에서는). 이 유한 반핵 입장은 이들 세 신문들에 대한 그러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들의 전체 비율을 볼 때 더 강화된다. 모든 부정적인 혹은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조사에서 인콰이어저는 타임지나 포스트에 비해 전체 보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반핵 입장으로서의 강도가 그렇게 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인콰이어저가 전체 원자력산업에 대한 보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는 정도

였다.

다른 주요 신문들에 관해 보면, 타임지는 체르노빌에 관하여 가장 많은 수의 기사를 내보내기는 하였지만 22개의 조사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한 언급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항목들에는 소련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 있었던 과거의 사고나 안전 기록에 관한 정보들에 관한 것이었고, 몇몇 항목들은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야기하는 정보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신문에서 더 많은 기사를 작성하였던 두 영역은 소련에 관한 것이었는데, 왜 그들은 흑연갑속형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었는가, 왜 원자력발전은 그 나라로서는 중요한 것이었나 하는 문제였다. 뒷 배경에 관한 보도의 결함은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있는 보도로 유명한 타임지로서는 놀라운 것이었다.

타임지는 거대한 과학 저술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 중의 몇몇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데다가, 유럽이나 소련에 가장 많은 통신원들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타임지의 이러한 태도는 수수께끼 같았다.

포스트는 22개 조사 항목 중에서 13개에 대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포스트에서는 다른 신문보다도 동서유럽에서 있었던 안전 기록이나 과거 사고에 대한 기사들을 약간 높은 수치로 내보

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신문은 보도에서 다른 그룹의 선두에서 지 못했을 것이다. 타임지보다도 작은 과학 저술 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콰이어지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작았으므로, 포스트는 원자력산업의 배경에 관한 주제는 더구나 보도하지 않았다. 대개 포스트지의 역할은 더 공세적인 인콰이어지 보다는 타임지를 닮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알렌타운 모닝 콜에 대해서는 특히 보도의 비율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조사 항목에 대해 저널이나 콜은 3대 주요 일간지들 보다도 전체 기사에서 이들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예를 들면, 콜과 저널이 각각 9개와 7개의 기사에서 미국 원자력산업의 안전 기록이나 과거 사고들에 대해서 쓰고 있었지만, 그 비율은 전체 기사로 볼때, 47.4%와 23%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비율은 다른 3대 일간지 보다 높은 것이었다. 이들 두 신문은 또한 산업에 대한 공격성·비판성 언급이나 산업체의 변화, 정부의 부가적인 규제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 다른 인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주요 일간지의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원자력산업이나 원자력발전에 관해서는 주요 3대 신문보다 저널과 콜에서 보도한 기사들이 더 좋았는가 하는 의문은 남아있다.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요 원자력사고에 대해서 내보낸 기사들이 소수였다는 사실이 긍정적인 답을 불가능하게 한다.

### 방송망에서 보이는 차이들

세 방송망에서 보도한 사실들에서는 차이 보다도 유사성이 더 많이 보였다. 세 방송망이 가장 공통적이었던 것은 원자력산업 상황에 대한 배경이 되는 정보들의 부족과 미국 뿐만 아니라 소련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비판을 보내는 데서 보여준 소극성이었다.

각 방송사간에 어떤 특정 경향을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CBS는 뉴스 방송에서 몇 가지 주제, 특히 원자력산업의 역사나 현재의 상황에 관련된 주제들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NBC는 그 보도의 비율에서 다른 인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두드러진 유일한 차이인 ABC와 CBS나 NBC만큼 이 주제를 보도하는 데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 사실들에서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화면을 세거나 진술을 세는 것이 전체 사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텔레비전은 그림이나 소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요소들을 보도 평가에서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화면 그림과 숫자를 서로

연관해 보았던 과거의 글에서는 사고가 있는 1주 동안의 보도에서 세 방송망에서 보낸 그래픽이나 단어들 사이에 선동적인 결합들이 있었던 14가지 경우를 발견하였다. 체르노빌 역시 과장된 상당량의 텔레비전 보도를 탔다. 연구에서 자주 지적하였듯이 이 사실은 시청자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한쪽으로 기울여 놓게 된다.

### 맺 음 말

체르노빌과 같은 원자력 사고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는 그 기술의 위협에 대해 지나친 평가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하여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온다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체르노빌 사고에 연관된 모든 인자들에 관한 보도가 그러한 과장된 평가에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원자력발전이나 원자력산업과 연관된 배경 인자들에 관하여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한 보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유일하게 과장되고 부정적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하여 공격성, 비판성 발언을 담고 있었고, 원자력산업 내의 변화 및 정부의 부가적인 규제를 요구하였던 많은 기사나 뉴스들이었다. 사고는 소련에서 일어났고 일반적인 미국 원자력발전과는 연관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보도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 외

에는 그밖에 어떤 것도 이들 언론 매체들의 반핵 경향을 나타내 주지 않았다.

한편,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 산업체 중역들이나 정부관리들은 그들 스스로 균형잡힌 배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또한, 몇몇 대중들은 그러한 노력을 편향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위험을 수반한 기술을 지지하는 이들은 여러가지 장기간의 적극적인 조사작업을 통해서 이들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이들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소재자나 소식지들의 발간을 비롯, 발전소 견학이나 발전소 개방, 전시회 후원이나 이들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 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들이 포함될 것이다.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나 조직화 작업도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TMI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역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방문자 센터나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 생산업자 협회(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의 「지역인식과 위기 대응 프로그램(Community Awareness and Emergency Re-

sponse program)」조직의 구성원인 화학 산업체에서도 또한 이런 방향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들 노력의 일부로서 그들은 화학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일어나는 소위 '화학 공포증(Che-mophobia)'을 극복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화학 산업체에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교육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에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중의 이해를 위한 화학 교육프로그램(Che-mical Education for Public Understanding Program)이 있는데, CMA에 따르면 '과학에 관련된 주제를 사회적인 전후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과학 스크린 보도(Science Screen Report)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는 일련의 비디오 테이프들로 기초과학에서부터 기술이나 환경에 이르는 주제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안내가 들어있다. 이 밖에도 산업체의 대표들은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이나 선생을 화학 공장으로 초청하고 있다.

끝으로, 정보는 저널리스트들에게도 주어지야만 하며 여기에는 신문사나 텔레비전 방송의 전문과학 또는 환경관련 보도자들 뿐만 아니라 기술에 의한 위협에 놓인 지역에 위치한 일반 보도자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 정보는 믿을만 하며 가능한 객관적인 것이어야만 한다.